편집인의 글

대한의사협회지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며

함 창 곡
대한의사협회지 편집인
한양의대 한양대병원 진단방사선과

대한의사협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새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대한의사협회지의 새로운 편집인으로 위촉된 한양대병원 진단방사선과 함창곡입니다. 지금까지 대한의사협회지는 의사협회를 대표하는 공식 잡지로서 회무보고와 같은 소식지의 역할로부터 시론을 통하여 의료정책의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회원 여러분을 위한 시의 적절한 특집과 의학강좌를 게재하여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진료 일선에 도움을 줄 산지식을 제공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협회지는 훌륭한 교육적 잡지였으며, 이러한 정책적이고 교육적인 잡지를 만드는 일에는 의협 학술이사를 편집인으로 하는 편집진이 보다 폭 넓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었고 어떤 면에서는 효율적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옥과 같은 좋은 종설이 게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협회지는 인쇄 배포되는 수에 비해 읽히고 보관되어지는 수가 적다는 평도 듣고 있습니다. 편집인협의회의 일을 해왔던 저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협회지는 의학전문 학술지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구논문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적 내용을 담고 있는 종설들이므로 엄격한 동류심사(peer review)가 없어 체제상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상태로는 학술진흥재단은 물론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에도 등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제 서가에는 10여권의 우리 협회지가 꽂혀있습니다. 제 경우 대한의사협회지를 받아 제목을 살펴보고 혹시 앞으로 자료로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꽂아놓습니다. 1년치 12권을 그대로 쓰레기통으로 버리는 때도 있습니다. 교육병원에 근무하고 계신 일부 회원들은 협회지의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주로 일차진료의사에게 보탬이 될 의학강좌와 특집만 실려 있고, 자신들의 연구에 인용할 새로운 연구논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의학강좌 역시 제한된 주제를 제한된 면에 싣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많은 일차진료의사로부터도 푸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미국이나 영국 등 의학선진국의 의사협회 공식잡지인 JAMA나 BMJ 등은 인용지수면에서 최상위를 차지하는 국제저명학술지입니다. JAMA의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123개국의 70만명 이상이 구독하고 있고 약 20개의 외국어로 번역 출판되어 다른 45만명이 읽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한의학회에서 발간하고 있는 영문학술잡지인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JKMS) 역시 SCI Search와 Medline에 등재된 우수한 잡지입니다만 대한의사협회의 공식잡지인 대한의사협회지도 언젠가는 이에 버금가는 국제성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점차 연구 논문인 원저와 좋은 종설이 조화를 이루도록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편집인의글(함창곡)Q2003.1.221:20PM 페이지5

대한의사협회지의 성공적인 도약은 회원 여러분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원고도 주시고, 읽어주시고, 부족함이 있어도 참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의 의견이나 잘못에 대한 지적이 우리 협회지의 발전 방향에 가장 큰 방향타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 20여년간 대한방사선의학회지의 편집에 참여하였고, 1996년 창립된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에도 참여하여 국내 의학 학술지들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노력하여 왔습니다.

이번 2003년 1월호부터 대한의사협회지는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표지의 도안이 전문가 집단에서 발행하는 잡지임이 부각되었고, 고급 용지를 사용하여 인쇄의 질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논문의 편집과 조판 역시 새로운 감각에 맞추어 잡지의 형태가 고급화되었습니다.

또한 빠른 시일 안에 작은 틀 안에서 편집진을 개편 또는 보강할 예정입니다. 물론 우리 협회지의 편집 방향과 내용을 정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원저에 대한 동류심사를 위한 실무팀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대한의사협회지는 우리 회원의 중앙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 공식잡지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편집원칙은 의협의 방침이 최우선이며 이를 지킬 것입니다. 따라서 변화는 서서히 진행될 것이며 원저 역시 한국적 특성을 갖는 논문을 우선적으로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따라서 제가 제일 먼저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협회지를 의학전문학술지의 형태로 바꾼 다음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와 학술진흥재단에 등재되도록 하여 원저의 원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지를 회원들이 읽는 잡지로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며 이를 위하여 폭 넓게 의견을 청취하여 실무팀에서 연구하도록 할 것입니다.

대한의사협회지는 대한의사협회의 얼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편집인의 역할이 지대하며 저 자신의 능력에 비해 너무 어려운 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저 자신은 이 일을 의료계에서의 마지막 봉사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구성 후 편집 전문가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능력 있고 열의 있는 전문가들로 실무팀을 구성한다면 우리의 꿈은 이루어 질 것으로 믿습니다.

대한의사협회지의 성공적인 도약은 회원 여러분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원고도 주시고, 읽어주시고, 부족함이 있어도 참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의 의견이나 잘못에 대한 지적이 우리 협회지의 발전 방향에 가장 큰 방향타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의협 학술국 또는 저에게 직접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연구 논문을 쓰시는 회원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새로운 투고규정이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원저의 원고를 받기 시작하겠습니다. 원저는 전문분야 학회지가 다루기에는 적합치 않은 한국적인 소재를 포함한 의학논문이나 우리나라 의료 문제를 다룬 학술 논문을 우선적으로 게재할 예정입니다. 많은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논문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